

전남 초등학교 48곳 “신입생이 없어요”

학생 없는 학교 16곳...전교생 1명 나홀로 학교 속출 올 복식학급 69개교 106학급...교육 질 저하 우려

“학교는 있는데 입학할 신입생이 없어요.”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에 자리 잡은 흑산초흑산분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이 없다. 목포에서 배로 2시간가량 걸리는 이 마을에는 100여가구 200여명이 살고 있지만 취학아동이 없다. 학생은 딱 한 명이다. 올해 3학년이 올라가는 학생이 인근 흑산초로 전학이라도 간다면 당장 학교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다.

이 학교의 유일한 교사인 김성민(31)씨는 “학생도, 보호자도 모두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어 쉽게 통폐합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홀로 학교여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협동심을 기르거나 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 여파로 전남의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거나 1~6학년까지 재학생이 한 명뿐인 이른바 나홀로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전남에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해 48개교에 이른다. 지난해 42개교에서 6곳 늘었다. 경북 22개교, 강원 15개교, 전북 10개교, 경기·경남 각각 6개교, 충북 4개교, 인천 3개교와 비교하면 학생 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당연히 입학할 수 없다. 농어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선 신입생 공백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결국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나홀로 학교는 수업이라도 이어지니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재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교 중인 초등학교분교가 목포 유달초유달분교를 비롯해 전남에만 무려 16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휴교가 장기간 이어지더라도 학교가 소재한 지역사회의 여론이 정리되지 않으면 학교는 폐교로 이어지지 않는다.

농촌 인구 감소는 신입생이 없는 학교, 재학생이 단 한 명뿐인 나홀로 학교, 휴교 중인 초등학교뿐 아니라 ‘복식학급’도 만들어내고 있다. 학년별 학생이 적어 2개 학년을 한 반으로 묶어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실이 속속 생겨나는 것이다. 2018학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에 따르면 인접 2개 학년 학생 수가 6명을 넘지 못하면 복식학급으로 편성된다. 전남에는 올해 최대 69개 초등학교에서 총 106학급이 편성될 예정이다. 복식학급에 편성될 학생 수는 404명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과 교

사들은 복식학급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개 학년이 한 반에서 교사 한 명에게 수업을 받다 보니 아무래도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농어촌이 많은 전남 특성상 향후 학생 수 감소가 뚜렷해져 신입생 없는 학교, 나홀로 학교, 복식학급이 편성된 학교가 늘어 결국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취학아동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출산율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우선인 만큼 학교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밀려드는 설 택배 설 명절을 앞둔 8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우편집중국 물류집하장에서 직원들이 배송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설 귀성길 15일 오후 원활... 귀경길 16일 가장 혼잡

SKT 교통상황 예측... 16일 오전 광주→서울 7시간

SK텔레콤이 설 연휴(14~18일)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을 예측한 결과 설 당일인 16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귀성하기 좋은 시간은 14일 오전 10시 이전이나 15일 오후 6~8시로 나타났다.

8일 SK텔레콤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의 지난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광주 경유 귀성길은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오후 2시 정체가 나타

날 전망이다. 귀경길은 16일 오전 9시~오후 6시, 17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정체가 예상된다.

16일 오전 11시 광주에서 서울로 출발할 경우 소요 시간은 평소보다 3시간 이상 긴 7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귀성길 주요 도로 사정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는 오후 3~5시에 한남 IC~목천IC, 남이JC~영동1터널, 왜관

IC~도동JC 등 190km에 걸쳐 평균속도 시속 50km 미만의 정체가 예상된다.

영동고속도로는 같은 시간 서장JC~월곶JC, 안산JC~둔대JC, 신갈JC~강천터널, 횡성휴게소~평창IC 등 90km에 걸쳐 정체가 있을 전망이다.

귀경길의 경우 같은 시간 경부고속도로는 170km, 서해안 고속도로는 100km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영동고속도로는 이날 오후 4~6시 100km가 정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조선대 이사장에 박관석 교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에 박관석(62) 목포대 교수가 선임됐다.

조선대 법인 임시이사 8명은 8일 법인 이사실에서 2018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어 박 교수를 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박 이사장은 임기 2년 동안 정이사 체제가 구성될 때까지 이사장직을 맡게 된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등 40여 건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대학본부 측이 적립금에서 360억원을 빼서 쓰겠다고 제출한 적자예산안에서 260억원을 삭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5 해질 02:05
 해짐 18:09 달짐 12:51



한낮 포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에 비 또는 눈 내리는 곳 있었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 많음	-2/10	보성	구름 많음	-4/8
목포	구름 많음	-1/7	순천	구름 많음	-1/10
여수	구름 많음	1/8	영광	구름 많음	-4/7
나주	구름 많음	-5/8	진도	구름 많음	-1/8
완도	구름 많음	1/10	진주	구름 많음	-2/9
구례	구름 많음	-4/9	군산	구름 많음	-4/7
강진	구름 많음	-3/9	남원	구름 많음	-2/9
해남	구름 많음	-4/9	축산도	구름 많음	5/8
장성	구름 많음	-4/8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면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동)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서부	면바다(서)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매우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28	08:56
14:36	20:52	
10:15	04:11	
22:17	15:49	

◇주간 날씨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	☁	☁	☀	☀	☀	☀
0/7	-4/1	-4/2	-3/8	-1/9	-1/-9	0/10

풀렸나 했더니... 주말 다시 한파

광주·전남 내일부터 찬바람... 11~12일 눈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고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의 고기압과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기온(최저기온 영하 2.1도, 최고기온 7도)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10일부터 다시 북쪽의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곡성지역은 최저 영하 9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최근 최서남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내린 폭설로 주민들이 고립됐다.

8일 흑산면 가거도출장소에 따르면 가거도는 지난 2일부터 폭설과 풍랑까지 겹치게 일면서 주민 500여명이 배길 이 끊겨 4일간 고립되기도 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통제된 여객선은 7일에야 운항 재개됐다. /김형호기자 young@

동구청장 “전남대 병원 이전 속고해달라”

병원 방문... “동구 공동화 우려... 일부 지자체 이전 부추겨”

김성환 동구청장은 8일 이상용 전남대학교병원장을 만나 전남대병원 이전 문제(광주일보 2월1일자 7면)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 병원장에게 “일부 지자체가 현실성 없는 제안으로 병원 이전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지역민과 고락을 같이해온 병원 이전논의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의과대학이 화순으로 빠져간다면 이어 전남대병원까지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동구의 심각한 공동화는 물론 지역민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현 의과대학 부지 고층건물 신축허가, 관내 대체부지 검토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장은 “지역 여론을 전달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현재는 검토단계에 불과할 뿐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청정 공기 배출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워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 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 063-835-4771